



안식년을 마치고 페루에서.....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에서 육신의 치료와 귀한 만남들을
갖으며 많은 사랑을 받고 미국을 거쳐 지난 7 월
1 일 페루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에서 많은 믿음의 동역자분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행복한 꿈을 꾸고 깨어난
느낌입니다. 페루에 도착하니 공항에 마중나온
Jerson 목사님(협력교회)과 현지인 형제,자매들이
기쁘게 맞아 주었고, 짐도 옮겨주는 수고를

해주어 편안하게 집에 잘 도착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때문에 이런 귀한사랑을 받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만남의 감격은 잠시, 도착하니 10 개월간 비워두었던 집의 전기와 물이 끊어져 있더군요.

(신학교형제에게 부탁을 해냈었는데...) 아.... 그동안 잊었던 선교지의 현실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린 다음날 그다음날도 도착한지 2 주가 지난 지금까지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않아 길건너에 있는
신학교에서 샤워를 하고 옵니다. 가끔 마주치는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 모자를 뒤집어 쓰고 뛰어 다니면서
하루빨리 이사갈 집을 매일 찾고 있습니다.

다시금 선교훈련을 찢하게 받는 느낌입니다. "스트레스 안받고, 급하게 몰아 가지 말고, 현지인
사역자들을 미워하지 말자. 이 또한 주님의 뜻이 있으리라. 믿고 천천히 현지인들과 발을 맞추어
나아가자" 라고 나 자신에게 매일 이렇게 말합니다.

페루에 오기전에 여러가지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어린이 사역(어와나)Mision Shammah 사역 확장, 구약
성경공부, 한국어학원, 기술학원등등. 그러나 늘 그렇듯 "한 걸음씩 주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따르자"에
목표를 두며 오늘도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지난주 부터 제일먼저 협력교회인 Palabra de vida 교회의 청소년들을 훈련시키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10 대들 청년사역에 빠질수 없는 먹이는 사역을 위해 맛있는 빵과 햄 그리고 치즈, 상추와 토마도를 준비해 현지인교회의 학부모에게 준비를 맡겼습니다. 제자훈련 방식은 현지인교회의 청소년들을 Mision Shammah 리더로 세워 교회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섬기고, 그중에 몇명은

저희가 앞으로 섬길 고아원과 Mision Shammah 사역이 필요한 다른 지역에 함께 데리고 다닐 계획입니다.



전부터 함께한 Mision Shammah 리더들 6 명과 함께 더 많은 새로운 리더들을 훈련을 시켜 세우려고 합니다.

감사한 것은 그동안 먹이고, 싫은 소리 하면서 훈련을 받은 Mision Shammah 리더들 거의 다 본인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리더로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어 현지인 목사님들에게도

우리에 대한 평판이 좋게되어 정말 감사했습니다.

리더 한 사람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시간이 흘러야 되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니 이곳 딱나에서 리더들과 함께 한지 벌써 8 년째..... 가족같이 늘 우리일을 위해 자신들 일을 제쳐두고 도와주는 그들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며, 보배임을 다시한번 깨닫습니다.

(빌립보서 4:6-7)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3 번째 팀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새로 시작하는 한국어 학원과 기술학원이 젊은이들에게 전도의 좋은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리고 사역에 필요한 재정(사무실 임대)이 잘 채워질 수 있도록 또한 날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걱정과 염려가 아닌 소망과 기대를 갖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페루의 끝자락 딱나에서 장인성/ 에스더 선교사 드림

기도제목

- 1: 육신의 연약함이 치료될 수 있도록(당뇨, 콜레스테롤, 갑상선저하증)
- 2: 새로운 집과 사무실을 빨리 구할 수 있도록
- 3: 새로운 사역(한국어 학원, 기술학원, 현지인교회 청소년 훈련사역)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 4: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충만 할 수 있도록